

‘우촌초 입찰비리’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기소

# 일광학원 교비횡령 사실로… 서울교육청, 제보자 긴급구호

2019년 부패행위 신고접수 감사  
부정입찰 등 교비 횡령 수사 의뢰  
“공익제보 교직원 학교 복귀 기원”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교비 수억원을 빼돌려 사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감사 결과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탄압하고 있는 우촌초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우촌초 교직원 6명에게 2020·2021년 급여 상당액 약 4억85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5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 우촌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공익제보에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이전에 다합·선정한 용역업체에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24억원 상당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해 같은 해 10월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탄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이유로 우촌초등학교에서 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조속하게 학교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9년 10월 ‘일광학원 비리적 결궐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당시 당

해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했던 재학생과 학부모 70% 이상을 비롯한 우촌초 학부모·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촌초 교직원들이 공익제보한 2019년부터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는 공익제보 교직원들에게 파면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복직 등 신분회복 결정에 계속 불응하면서 교육청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게 ▲전 이사장의 위법·부당한 학사개입

방조 ▲이사회 부실 운영 등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제1심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결한 데 이어 지난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동일 건 청구를 기각을 결정했다.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교육청 수사의뢰 사건 혐의자 11명을 기소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비롯해 용기 있게 나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쏟은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h@metroseoul.co.kr

## 교육부-대학, 대면수업 재개 논의 나선다

오미크론 등 코로나 사태 우려 여전  
이르면 18일 대책회의 진행 예정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들과 이르면 18일 대책회의를 갖고 1학기 대면 수업 재개 가능성과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여전히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과 신학기 대면 수업에 대해 협의학 위한 자리다.

교육부는 올해 3월 신학기부터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재개하기로 바라고 있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선 감염 상황을 우려해 결정을 선불리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대학의 대면 수업은 물론 학생회 활동과 같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감염 상황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내놓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오미

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해 일정 인원 수 이상의 강의에서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하는 대학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희대는 지난 11일 1학기 수업 운영 안내를 공지하고 이론 전공 수업은 배정 인원이 30명을 초과할 경우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했다. 교양강좌는 배정 인원과 관계 없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서강대도 학내 일상회복 지원단회의를 거쳐 지난달 22일 40명 이상 수업은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정하는 1학기 수업운영 방침을 안내했다. 대면수업 강의실은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 배정할 방침이다.

다른 대학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교육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서울대는 이번 주 학내 수업환경개선 위원회를 거쳐 1학기 학사 운영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세대도 인원 수로 기준을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대면, 비

대면, 블렌딩(혼합형) 수업을 교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신학기 수강신청까진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등록, 학생들의 거주지 마련 등을 돋기 위해 교육부가 가급적 빨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서울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을 겪어왔던 만큼 대면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비상 시국이나 학생들의 교육권보다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도 신학기 등록금 납부나 주거지 마련을 준비해야 하고, 대학들도 그에 맞춰 방역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지원이 가능하면 빨리 나올 수록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



교육부는 오는 17일 유튜브를 통해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서 선정된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5개 사례를 공개한다. 사진은 우수 사례로 공동 선정된 경남 남해군 고현면 소재 고현초·도마초 ‘함께하는 한마음 공동체 놀이’.

/뉴스

## 혁신교육과정으로 폐교위기 극복 농어촌 학교 17곳, 교육부 장관상

우수사례 유튜브 공개

입학 인원이 감소하며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수를 늘려 기사회생한 전국 농어촌 학교 17곳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서 선정된 농어촌 교육 우수사례를 유튜브와 작은학교희망TV를 통해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 수 300명 이하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 80개교, 중학

교 27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13개 교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6개교가 선정돼 2차 동영상 자료를 심사해 16개 우수사례(17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포천시 내촌 중학교의 경우 지리적으로 행정구역은 포천시에 속하지만 남양주시가 인접해 초등학생들이 졸업 후 중학교 진학을 남양주로 하면서 폐교위기를 맞았으나, 관내 내촌초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초중 모두 안정적인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확대

치료지원금 월 12만원→16만원  
특수학교 교육실무사 증원 배치

서울 특수교육 학생의 치료지원 금액이 월 16만원으로 4만원 상향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금액이 인상되는 건 11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를 증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사용금액 관련 예산을 연간 약 30억원 증액해 기존 월 12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월 4만원 상향 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금액은 지난 11년간 월 12만원으로 동결돼왔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학생에게 질 높은 치료지원 서비스는 물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기대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및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실무사를 증원해 배치했다.

2022학년도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실무사 배정 인원은 총 408명으로 2021년 대비 77명 증원됐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 ICT논문 공모전 최우수상

세종대학교는 지능기전공학과 대학원생 팀이 제13회 ICT논문 공모대제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ICT논문공모대제전은 ICT 분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대회다.

세종대 지능기전공학과 석사과정 김지원, 김형준, 김태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세종대 팀은 멀티스펙트럴 영상을 이용해 보행자를 찾아낼 때 움직이는 두 개의 영상이 겹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후 멀티레이블 학습을 이용해 겹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보행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현진 기자

드론 활용 홍보영상 제작

동국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제주 지역 역량 활성화를 위해 제주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산·관·학이 함께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산학협력 교육 성과로 탄생한 국가공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조종자증명시험(3급)을 취득한 두 대학의 재학생 12명

이 제주 민속오일장을 방문해 드론을 활용해 홍보영상을 만든다.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통해 완성된 홍보 콘텐츠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동국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LINC+사업단을 중심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드론)조종 전문 인력 육성에 힘써왔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BM C에 드론 교육장을 구축하고, 우수인재 배출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